**어두운 겨울밤의 밝은 빛 - 크리마스트리**

바야흐로 새벽공기에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날이 시작되었네요.

눈깜짝할 사이 시간이 흘러서 벌써 11월이네요.

2014년 1월 여러분 마음속에 품었던 올해의 목표는 잘 수행되고 있나요?

이루셨다면 축하를, 아직이라면 남은 두달동안이라도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0^

이맘때가 되면 노랗게 도심 길가를 물들였던 은행잎이 지고, 남은 메마른 나뭇가지들이 처량해보이기까지 하곤 합니다.

하지만, 곧 여기저기서 캐롤송이 흘러나오면서 알록달록한 전구들이 도심의 나뭇가지를 장식하면서 화려하게 빛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긴 겨울밤에 가장 밝게 빛나는 건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 빨간 우체통은 산타클로스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상징인 ‘크리스마스 트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과연 언제부터 세워진 걸까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유래는 나라별, 시대별로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전해지는 유래는 아래의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고대 ‘애굽’에서의 동지제때의 나뭇가지 장식 또는 로마 축제 행렬에서 쓰던 촛불을 단 월계수 가지 장식 등 옛날의 성목(聖木) 숭배사상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인들도 흔히 나무를 숭배해 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뒤에도 스칸디나비아인들의 관습속에 이것이 남았다고 하네요.

마치 우리가 동지에 팥죽을 쒀서 나눠먹으면서 귀신을 쫓던 것과 같이 새해가 되면 상록수로 집과 헛간을 꾸며서 악마를 겁줘 쫓아내는 풍습을 가진 것이죠.

두번째는 엣 로마인들의 설날이었던 1월1일 사람들이 자기집에 푸른 나무와 등불로 장식한 후 자녀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튜튼족이 갈리아, 브리튼, 중앙 유럽으로 침입해 유입되면서 게르만족과 크리스마스 축제의식들이 이 관습과 융화되어 변형된 것이라고 합니다.

음식과 모임, 크리스마스 이브에 벽날로에 때는 장작, 크리스마스케이크, 전나무 장식, 크리스마스 선물, 축하 인사등이 이 축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되었으며, 중세 이래로 생존의 상징인 상록수가크리스마스 최대의 장식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독일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로마의 주교 줄리어스 1세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독일인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무를 삼각형으로 쌓아 올리고 선반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인물들의 입상을 올려놓거나 영생을 상징하는 상록수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초, 별 등으로 꾸몄다고 하네요.

이러한 관습이 18세기 독일 루터교도들 사이에 퍼져 19세기에 꽃을 피웠으며, 이후 영국으로 들어가서 빅토리아 시대에 사람들이 나뭇가지에 과자나 사탕, 양초 등을 매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에는 17세기 독일 이민족들에 의해서, 중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에는 19,20세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마지막 유래가 가장 신빙성이 있어보이네요.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적인 축제일이 됨과 동시에 크리스마스 트리 또한 많은 나라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모습으로 세워지곤 합니다.

미국 뉴욕의 록펠러센터 앞의 20m가 넘는 전나무에 알록달록한 불(2007년부터 친환경 LED조명으로 바뀜)로 되는 크리스마스트리나 바티칸시국 산피에트로 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 이탈리아 구비오시 인지노산에 장식되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역사나 상징성 등에서 전세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의 이미지나 특이한 기타 이미지 자료 부탁합니다.)

(<http://www.sptoday.com/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51590&sca=%B5%F0%C0%DA%C0%CE&sop=and&page=20&p=1>

<http://cafe.naver.com/logo12/47604>

<http://blog.naver.com/gustnsl1219?Redirect=Log&logNo=140203275458> )

우리 나라에서 역시 여러 곳에서 다양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는데요, 무엇보다 유명한 곳이 바로 서울시청광장에 세워지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1965년 12월24일 첫 점등식을 시작한 이래로 매년 서울광장에 세워지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많은 이들이 찾는 서울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961446603040488&DCD=A00703&OutLnkChk=Y>)

보통 11월 말경에 점등식을 시작으로 1월초까지 세워져있다고 하니, 가족들과 함께 청계천 나들이겸 해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TIP. 그 밖에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 (각각 박스처리)**

**빨간 선물주머니의 할아버지 -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는 어린이들의 수호 성인인 성 니콜라스(St. Nicholas) 의 애칭으로 270년경 지금의 터키지역인 소아시아의 파타라라는 지방항구도시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자선심이 지극히 많았던 인물로 후에 미라의 대주교가 된 이후 더욱더 남몰래 선행을 베풀었는데, 이 같은 그의 생전 자선 행위에서 오늘날의 산타클로스의 이야기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를 성인으로 추앙되었고, 라틴어로 ‘상투스 니콜라우스’ 인 그의 이름을 네덜란드 사람들은 ‘산 니콜라우스’ 라고 불렀는데, 특히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주한 네덜란드인들은 ‘산테 클라스’ 라고 불러, 자선을 베푸는 자의 전형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발음이 그대로 미국어화 되었고, 19세기 크리스마스가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하는 상상의 인물이 되어, 어린이들이 정답게 부르다가 '산타클로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는 거인, 곱슬머리의 난쟁이 요정 또는 큰 키, 날렵한(?)한 몸매의 중년남자 등등 여러 가지였는데, 1931년 미국의 ‘해돈 선드블롬’ 이 코카콜라사의 겨울 프로모션을 위해 광고에 붉은 색 옷의 배가 나온 인자한 이미지의 산타클로스를 사용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산타클로스의 이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산타클로스 옷의 붉은색은 코카콜라의 붉은색을 상징하고, 모자와 장화 등의 흰색 털은 콜라의 거품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

**산타클로스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 산타클로스 마을 [Santa Claus Village]**

산타클로스가 사는 마을은 [노르웨이](http://100.naver.com/100.nhn?docid=38415)의 [오슬로](http://100.naver.com/100.nhn?docid=115586)를 비롯해서 전세계에 여러 곳이 있으나 [핀란드](http://100.naver.com/100.nhn?docid=184537) [로바니에미](http://100.naver.com/100.nhn?docid=55525)의 산타마을이 가장 인정받고 있다. 산타마을(Santa village)은 로바니에미 시내에서 8Km 떨어진 곳의 한적한 숲에 있다.

산타마을에는 산타클로스의 사무실인 산타 오피스, 전세계 어린이 정보가 담겨 있는 책들이 소장된 도서관, 우체국, 산타파크 등이 있다. 우체국은 전세계 어린이들이 보내온 편지로 가득한데, 이곳에 편지가 도착하면 각 나라별로 분류되어 산타클로스에게 전해진다. 산타클로스는 어린이들이 보낸 편지에는 일일이 답장을 해주는데, 이를 위해 12개 국어를 구사하는 비서들이 산타클로스를 돕고 있다.

**헷갈려요 Christmas?? X-Mas??**

크리스마스(Christmas)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Christ와 미사를 뜻하는 Mass의 합성어로, 여기서 X-Mas에서 Mas는 미사를 뜻하는 용어 그대로지만 앞에 X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리스어인 Χριστός(크리스토스)라는 말의 앞글자를 따서 X-Mas라 부른다.

그러므로 ‘엑스마스’ 이렇게 부르는건 틀린 말로 ‘X-Mas’ 라 쓰더라도 ‘크리스마스’ 라고 읽어야 한다.

글 작성. 전략기획팀 이미선과장

자료출처. 네이버 블로그